

칼럼

장기채 주필



‘국내로 가는 여름휴가’ 경제도 살린다

이제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 ‘휴가’라는 말만 들어도 누구나 맘이 시원하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알뜰한 호주머니가 발목을 잡지만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 올 여름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것이다. 잘 놀아 보라고 명석을 깔아줘도 이런저런 걱정에 잘 놀지 못하는 어른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여가 시간에는 무조건 잘 놀고 잘 쉬어야 한다는 ‘휴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말 ‘휴가’와 영어 ‘테크닉’을 합성한 단어인 듯 한데 잘 놀고 잘 쉬는 게 경쟁력이라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경제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겹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은 기업들은 휴가 사용 정리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訪美) 길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겠다”고 밝혀 휴가 장려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낮강 마을과 벗가리 마을로 휴가 갑니다” 몇 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휴가’ 세일즈에 나섰다. 물론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은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3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여름 휴가비를 지급 하겠다”고 밝힌 곳은 68.5%로 지난해보다 1.8% 늘었다고 한다. 불황을 맞아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여름휴가비 지급 기업 비중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평균 휴가비도 61만7천원으로 지난해 60만4천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최근 부진한 체감 경기를 살리려면 내수 시장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가 효과적일 것이다.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3조원정도가 흘러가고 일자리 5만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수 진작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해마다 휴가철이면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공항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여행객 중 일부만 국내로 발걸음을 돌려도 내수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인의 관광객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동안 우리는 고도성장의 불가피한 속성으로 논다는 개념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휘둘러 왔다. 이 때문에 정부나 사회의 자율적 기관들도 서민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했고 그 부작용으로 이른바 퇴폐성 오락과 험락풍속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휴가로 주어지는 여가는 배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농사를 짓는 땅도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듯이 배움을 통한 휴식 과정을 거쳐야만 지속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가 바람은 차질 허영과 낭비의 바람도 함께 불고 오기 마

련이다.

휴가 본래의 목적은 휴식과 건강에 있다. 올해 여름휴가 일수는 평균 4.4일로 전년(4.3일)에 비해 0.1일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이 4.9일, 300인 미만 기업이 4.2일이라고 응답했다. 주말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휴가일수는 6~9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업별 휴가 시기는 8월 초순(49.3%)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7월 말(29.7%), 8월 중순(5.0%)이 뒤를 이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는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위축된 소비심리가 여름휴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여행객 증가율은 2011년 13.2%에서 2014년 0.8%로 감소했다. 물론 경제를 정상세로 올리기 위해서는 소비심리가 중요하다.

이제 온 국민이 여행을 장려해 경제를 살리고 국민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다져야 한다.

휴식은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고 했다. 마디가 있어야 대나무가 성장하듯 사람도 기업도 쉬어야 강하고 굳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경제 살리기는 당장 내 나라에서 보내는 여름휴가가 첫 걸음일 것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가 시간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6.7%)가 가장 많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社說

기후 반영한 방재기준 필요

앞으로 각종 방재시설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후변화 요소들이 반영된 다니 기대가 크다.

지금까지는 이런 요건들까지 감안한 방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안이 마련돼 시행되면 재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행이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안전처는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기간별·지역별 예측 강수량과 적설량, 풍속의 증감 등을 방재기준에 반영하는 가이드라인 개선안 등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기상관측 값 등에 근거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방재시설 설계기준에 적용하다 보니 강수량이 예측치보다 많을 경우 방재시설 처리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도 있었다.

안전처는 또 기존 강우·적설량, 강풍, 해수면에 더해 ‘강우+강풍’, ‘적설+강풍’ 등 복합 재난 상황을 가이드라인 내 재해 유형에 추가했다.

분석 방식도 기상청의 관측 결과에 따라 지역적 유사성 등을 고려해 시·군을 군집화해 분석하던 방식에서 시·군 단위로 조개 분석하도록 세분화했다.

아울러, 기상청 관측값을 근거로 특정 지역에 비가 얼마나 올지를 예측하는 한국확률강우량 산출에도 기후변화 요소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최근 공청회를 열고 이런 가이드라인 개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방재기준 개선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

안전처의 방재기준 개선안의 시행으로 국민적 재난이 크게 줄어 들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浮渭據涇

浮渭據涇

물 이름
근거
통할

▷ 뜻: 위수에 뜨고 경수를 늘렸으니 정안은 서쪽에 위수, 경수 두 물이 있음.

청렴의 리더십

청렴의 단어를 떠올릴 때면 공직자가 떠오르며 공직자의 덕목에 청렴은 필수사항이다.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공직자의 청렴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우리사회는 청탁금지법으로 식사비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은 10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 없이 300만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청탁금지법으로 세부적인 상한 금액까지 지정한 것은 어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 부정, 청탁 등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 사회를 넘나들던 인정을 간단히 식사대접 선물문화 등이 우리나라의 청렴문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라고 불리는 우루과이 제4대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1935년생)는 1960년대 도시계급 출신의 전사로 1970년대 우루과이의 군사정권 시절에 14년간 수감되었고, 그 후 정치인의 길을 걸어 2009년 우루과이에 대항하여 국민들로부터 52%의 지지를 받은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재임기간 동안

공직적인 그의 재산은 1987년형 폭스바겐 비틀 한대가 전부이며, 주식이나 통장 하나 없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선 된 뒤에도 대통령 공에서 거주하지 않고 상원의원인 아내와 조그만 아파트에서 출퇴근 하며 월급 대부분을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건설에 기부하며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2015년 3월에 대통령의 임기를 모두 마쳤으며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빈곤한 사람이 아니다. 끝없는 욕망과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곧 빈곤한 사람이다.”라고 한 말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땀 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지나

야 하는 청렴의 리더십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청렴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국민을 바라보면서 진정성 있게 공직 업무를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청렴의 리더십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의 덕목에 ‘절대 청렴’은 필수이며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의 직책을 맡은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므로 사회에 만연된 부패에 맞서 청렴의 리더십으로 세계속에 우뚝 서는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이승희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장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湖南新聞 (HONAM NEWS)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advertisement for traffic safety with the slogan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Your small consideration creates a advanced traffic community!). It lists three points: 1.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Consider drivers by using 'directional indicators'), 2.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Consider pedestrians by 'keeping stop lines'), 3.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 (Consider commuters by 'not jaywalking').